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 (58회)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10절: 두 이긴자를 증거하는 영모님

- 1) 하와 이긴자와 밀실
- 2) 삼위일체를 계시한 십사만 사천의 의인
- 3) 제3신앙촌의 비화(秘話)
- 4) 하와 이긴자가 일곱째 천사를 인도함
- 5) 밀실에 입문하다
- 6) 밀실에서 일초일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
- 7) 좋아하는 것이 음란죄
- 8) 죄의 정체, 마귀의 금수를 최초로 알고 공격함
- 9) 내가 이겼나오, 하나님이 나를 이겼나이다

1) 해와 이긴자와 밀실

(지난호에 이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뿔아서 덕소로 가게 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되는 아담 이긴자만은 덕소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소사 신앙촌에 남아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당시에 덕소로 갈 때에는 해와 이긴자를 키울 때였으므로, 이제 마귀가 소사 신앙촌에 집중하고 있었던고로 해와 이긴자가 완성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사로 향하고 있는 마귀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덕소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사 신앙촌 제단을 오만제단이라고 하였던 것은 다섯 오(五)자는 아담이요 일만 만(萬)자는 해와를 상징하는고로 아담과 해와가 나오는 제단이라 하여 오만제단이라고 일컬었기에, 아담과 해와는 소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도통하여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영모님이 소사 신앙촌에 개설 때에는 뽕공장이라든지 메리야스공장이라든지 여러 공장들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전국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판매수익금이 트럭으로 막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펄펄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었지만 공장 전체를 없애고 덕소로 가시니까, 죄인의 안목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하늘의 사람이 행하는 일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모님을 주장하시던 하나님께서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잃어버린 아담과 해와를 찾아 에덴동산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 가운데 의인이 나왔다고 해서 여자 나체의 석고상을 덕소제단 정문 위에 붙이다

소사 신앙촌에서 해와가 먼저 나오므로 영모님이 해와 이긴자를 상징하는 두 번째 신앙촌을 덕소에 건설한 것입니다. 그래서 덕소에 가서는 남자 공장장들은 해임시키고 여자들로 세우고 천부장도 여자들로 세우니, 전부 여자 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신바람 나게 만들었던 이유는 덕소 신앙촌을 지을 때에 해와 이긴자가 나오므로써 그걸 웅변하기 위해서 천부장과 공장장을 여자들로 세우고 남자들이 그 밑에서 굽살대며 종노릇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으므로 남자들은 모가지가 잘리고 여자들이 전부 공장장을 하게 되니, 남자들이 영모님을 비웃으면서 재수 없게 여자들을 공장장을 시키고 남자 공장장을 해직을 시키니 '이것 참 우습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덕소신앙촌 제단 정문 위에 여자 나체의 석고상을 '승리의 여신상'을 본뜬 것 같다

이어서 1960년대 중반, 제2신앙촌 안에 덕소제단을 짓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모님께서는 교인 신 집사에게 명령하여 그 제단 정문에 여자 나체를 석고로 해서 갖다가 붙이게 하였습니다. 신 집사는 서울대학교 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여자 나체의 석고상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영모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언제나 강조하기를 "모든 죄는 뉘박에 있어도 음란죄는 뉘박 안에 있는 최고로 무서운 죄이므로 음란죄만 이기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 너희들은 눈길로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구원이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제단에 여자 나체의 석고상을 붙이라고 해서 명령대로 붙였던 신 집사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의심이 나, 결국 순복음교회로 떨어져나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 나체를 석고로 해서 붙일 때가, 이제그대로 해와 이긴자가 완전히 이긴자가 된 시점이었습니다. 여자 가운데서 의인이 나왔다고 해서 벌거벗은 나체를 석고로 해서 이 제단 정문 위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 가운데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 나왔다는 것을 이와 같이 천명 하셨습니다. 영모님을 따르던 전도관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해와 이긴자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상징한 계시를 분별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마귀한테 썩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나중에 제단 정문에 붙여놓은 여자 나체의 석고상을 슬그머니 떼어서 없애버렸는데, 그때에는 영모님께서 제3신앙촌 기장에 가시고 덕소제단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황무지 같은 밀실에서 십팔년간 연단 받은 해와 이긴자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밀실에 들어가서 아담 이긴자로서의 연단과정을 밟을 때 함께 기거하던 밀실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염비 권사님을 해와 이긴자로 키우시는 데 성공하시자, 여자 가운데 죄를 완전히 벗은 의인을 상징하는 여자 나체의 석고상을 덕소제단 정문에 붙인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이미 오래전에 석고로 해서 여자 나체를 거기에다가 세웠다고 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성경 스가리서 4장 12절에 보면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보면 한 감람나무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감람나무 원체가 두 가지를 키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람나무 원체는 영모님 속의 하나님이시고 이 영모님의 몸을 입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키우시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아담 이긴자와 해와 이긴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밀실에 들여보내진 홍염비 권사님이 먼저 해와 이긴자로 출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 이긴자가 출현하실 때에는 비로소 삼위(三位)가 합일된 하나님이 그 둘째 아담 속에서 이루어져 인류가 고대하는 구세주 하나님으로서 지상에 강림하는 것입니다(고전15:45).

밀실에서 삼위(三位)의 하나님 중에 마지막 남은 일위(一位)를 찾기 위해 전봉국 집사를 키워 봐도 자꾸 떨어지고 되지 않으니까 해와 이긴자께서는 또 다른 사람



독일 베를린 전승 기념탑 위에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Victoria)

을 전도해서 키워보시고 또 다른 사람을 키워보시고 하면서 18년이란 가나신 세월동안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를 썼던 것입니다. 이 18년이라는 기간은 홍염비 권사가 밀실에서 수년간의 모진 연단 끝에 해와 이긴자가 된 해(1962년)를 기점으로 시작 해서 마지막 일위(一位)가 되는 아담 이긴자가 배출되던 해(1980년)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르는 가지가 올라가다 떨어지게 되면, 영적 엄마가 대신 피를 토하며 사경(死境)을 헤매

홍염비 권사가 밀실에 들어온 지 사오년이 되어서야 1962년경에 여자 가운데 죄를 완전히 벗어버린 이긴자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 해와 이긴자가 밀실에 들어

와서 몇 년 동안 그 연단을 받아이기는 생활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전도를 나가라" 하고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 멀리 포리, 김포 지역까지 전도를 다녔던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에는 운동화를 단정히 신으시고 복장도 단정히 하여 나가셨으나 차는 타지 않고 걸어서 집집마다 다니시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한때 많은 비로 인하여 시흥 쪽의 허허벌판에 냇물이 넘쳐 목 위까지 넘실거리며 아랑곳하지 않고 풀뿌리를 잡으며 떠내려가는 몸을 지탱하면서 간신히 건너편 언덕으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모님의 형상을 하고 급히 나타나셔서 "위험하니 이런 데는 건너가지 마라."고 하시니, 해와 이긴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와 이긴자라는 분은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분이어서 이 험난한 가시밭길, 외롭고 고독한 길을 수십 년간 걸었던 것입니다.

홍염비 권사님이 완전히 이긴자가 되어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너무 힘이 든 해와 이긴자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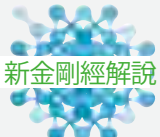
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하는 묵시록 6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를 하게 되니, 하나님의 사정이 불리하게 되어 영모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된 참사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영모님은 떨어진 해와 이긴자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밤새도록 피를 토하며 죄를 담당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시다가 죄 담당하는 고통이 극한에 이를 정도로 심하고 진액마저 고갈되어 인신불성이 된 채 쓰러졌습니다. 영모님의 사모님이 방안에 인기척이 없어 문을 열어 들어왔다가 그만 놀란 나머지 피바다로 흥건한 바닥에 미끄러져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해와 이긴자가 한 번 떨어졌으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해와 이긴자가 약해졌다가 되었고 육적으로는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참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부터 영모님께서 해와 이긴자를 다시 들어 올려야 되므로 곤욕을 더 당하게 되니 그로 인하여 아담 이긴자가 나타나 는 일이 더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르는 가지가 올라가다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들쭉거릴 정도로 대항사가 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던고로 일곱째 천사가 되는 아담 이긴자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살얼음 밟는 심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제 아담 이긴자가 자유율법을 어기고 떨어지게 되면 대항사가 나고 세상이 어수선하게 되었습다. 언젠가 영모님께서 축복일에도 가장 단에서 시지 못하고 몇 개월 씩 뼈와 가죽만 남은 인신불성인 상태에서 지내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때가 일본 산요회사의 다무라 전무가 전자시계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계를 납품하기 위하여 계약자와서 환영식을 할 때인데, 그때의 기념사진을 보면 영모님의 얼굴은 완전히 빨간색은 상태입니다. 이때가 바로 아담 이긴자가 자유율법을 지키고 올라가는 중에 지치지 못하고 떨어진 때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마귀를 이기고 자유율법을 잘 지켜나다가 1980년 2월, 1차 이긴자가 됐다는 허락함을 얻고 전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닌 지 두 달째 되던 4월초에 기성교회(은광 장로교회) 하나님을 통째로 전도하여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이 좋아하는 음란 죄가 되어 떨어지게 되니 그해 5월에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비행기 500대를 공중으로 띄웠던 것입니다. 이긴자 하나가 이겼다가 지는 바람에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다시 이기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지구는 점점 파멸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백한수



신금강경 해설(新金剛經 解說) <35>

구경무아분(究竟無我分) 第十七

구경무아 17분(分)의 결말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無我)의 법에 통달하면, 아래는 비로소 그를 참으로 보살이라 이름할 수 있다 설하느니라."고 한 바, 이렇게 "무아법(無我法)"이라는 말로 끝난다. 따라서 불교의 종지(宗旨)는 無我요, 대승의 종착(終着)은 공(空) 즉 無我요, 보살의 종국(終局)은 원(圓) 즉 無我다.

마침내 나라는 존재는 없다(1)

爾時 須菩提白佛言 我見三千大千世界 所有諸佛 悉皆空寂 無有少許 須菩提白佛言 我見三千大千世界 所有諸佛 悉皆空寂 無有少許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 云何應住 云何降伏其心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오되,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응당 머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합니까?

[해석] 다시 또 수보리가 금강경의 앞에서 여쭙고 것과 같이 세존에게 성불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는가를 반복하여 여쭙는 장면이며, 또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여야 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佛告須菩提 若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者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발아누다라삼막삼보리심자 當生如是心 我應滅度一切衆生 滅度一切衆生已 而無一衆生實滅度者 滅度一切衆生已 而無一衆生實滅度者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자라면 마땅히 이같이 마음을 낼 것이니, 내가 응당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 했지만 모든 중생을 제도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의 중생도 없어야만 이제 실제로 제도한 것이니라.

[해석] 이 말씀의 본래 뜻은 석존은 이 금강경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도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어느 중생도 단 한 명도 중생을 제도하지 못했음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석존께서 일체중생을 제도해서 마쳤다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더 나쁘게 변하지 않았어야 하며 또한 제도할 중생이 없이 삼라만상이 동시에 성불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보리에게도 중생을 제도한 적이 없다고 다시 말씀하고 있으며, 만약에 중생을 내가 제도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는 '내가 없다(無我)'라는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으로써 득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何以故 須菩提 如我相 須菩提 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 則非菩薩 所以者何 須菩提 實無有法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實無有法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

어째서 그러한가? 수보리야! 만약 보살(석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이뇨? 수보리야! 아누다라삼막삼보리를 발한다고 하는 법이 실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明鍾